



■ 연구원 소식

○ 문화교양강좌 『사진으로 역사읽기』 7차~8차 연속강좌 (7월 15일)

6월 3일 시작된 <사진으로 역사읽기> 교양강좌가 이번 주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난 주까지와 다르게 이번 주는 오후 6시부터 연속강좌로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7월 15일(월) 18시~21시 30분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주제: 낸 골딘과 신디셔먼, 다이안 아버스 “여성이 바라 본 사회”

강사: 장근범(사진아카이브 8 대표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운영위원)



<사진으로 역사읽기> 7월 8일 6차 강좌 모습

■ 역사 속의 오늘

맹호(猛虎)호의 등장 (1966년 7월 21일)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장 빨리 도착하는 열차는 대전역과 동대구역에 정차하는 KTX(Korea Train eXpress: 한국고속철도)로 2시간 15분이 소요된다. 고속철도는 1989년 도입을 결정하고 1994년 프랑스 알스톰사의 테제베 모델을 채택해 2004년 4월 1일 운행을 시작했다. 2010년 서울과 부산 사이 고속선로가 완전히 개통되었다.

현재 최대 시속 300km에 이르는 고속열차 아래로 시속 180km로 경춘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급열차 ITX(Intercity Train eXpress)-청춘, 시속 150km급의 급행열차 ITX-새마을&새마을호, 시속 120km 내외의 무궁화(경부선·장항선 일부 구간 누리로)호로 열차 등급이 나뉘어져 운행되고 있다.

고속열차가 대도시 위주로 정차하며 요금이 여객기 이용료에 맞서는 반면 무궁화호는 군청소재지 뿐 아니라 읍, 면, 리에도 정차하며 고속철도의 1/3도 안 되는 요금으로 운행하며 통일호 열차 폐지 이후 완행열차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1905년 육당 최남선이 경부선 철도 개통에 맞춰 지었다는 '경부철도가'가 한반도에 올려 퍼진지 100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7시간 넘게 걸리던 직통 급행열차가 2시간이면 도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경부선 급행열차는 1906년 융희호로 이름 지어졌고 1908년부터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직통운행을 시작했다. 일제 식민지가 된 후 히카리(빛)호, 노조미(소망)호, 아카츠키(새벽)호 등으로 불리던 열차는 1946년 '조선해방자'호로 이름을 바꿔 경부선을 누볐다.

1930년대 후반부터 경부선을 달렸던 아카츠키(새벽)호는 6시간 4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을 돌파했다. 해방 이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던 조선해방자호는 9시간 40분이 걸려 부산에 도착했지만 전쟁 이후 국산 기술의 발전으로 1962년 '재건'호라는 이름으로 6시간 10분 만에 서울과 부산을 주파하는 열차가 등장했다. 같은 해 가수 백야성은 "재건호는 달린다"라는 음반을 발표했고 1965년에는 6시간 만에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었다.

한국 열차의 이름은 베트남 전쟁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정부의 월남전 파병 결정으로 1964년 의료부대가 처음 월남에 파병된 이후 전투부대는 1965년부터 월남에서 전쟁에 투입되었다. 이후 1966년부터 비둘기호, 맹호호, 백마호, 청룡호, 십자성호라는 이름의 열차들이 운행되기 시작했다. 이 열차 이름은 1973년까지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부대의 이름들이다. 민족상잔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침략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역사가 열차 이름에도 이어져 있던 것이다.

당시 서울과 부산을 6시간 만에 주파하던 재건호의 아성을 넘어 선 것이 바로 맹호호다. 베트남전에 파병된 국군 맹호부대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특급열차였다.

서울~부산진간 4백 50킬로미터를 5시간 45분에 주파하는 초특급 맹호가 21일 오후 2시 처녀운행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 철도 사상 가장 빠른 열차로 등장했다. 이날 낮 1시 50분 서울역에서 맹호 명명식과 운행식이 베풀어졌는데 마침 귀국중인 전 맹호부대장이며 주월 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 중장이 참석 테이프를 끊었다. - 동아일보, 1966년 7월 21일 “맹호호 처녀운행” -

그러나 맹호호는 획기적인 기술력의 증빙이 아니었다. 기존 특급열차였던 재건호가 멈추던 역 가운데 천안, 조치원, 김천, 삼랑진 네 개 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며 감속구간을 최소화한 것으로 5시간대에 진입한 것뿐이었다. 이는 한일협정과 베트남전 파병 등으로 이반된 민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었다.

철로와 건널목 등 기본적 철도 교통 인프라 대신 운행 시간을 줄이는데 집중한 탓으로 맹호호와 관련된 잇달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맹호호의 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재건호나 통일호 등 낮은 등급의 열차는 연착되기 일쑤였다. 화물을 싣고 각 지역에 운송해야 하는 화물열차 역시 맹호호를 위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 와중에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자 이용객마저 급감해 결국 1970년 12월 1일 맹호호는 운행을 중단한다.

1966년 오늘, 서울과 부산을 5시간 45분에 주파하는 열차 猛虎가 정부가의 민심 전환용으로 요란하게 등장했지만 불과 4년 뒤 민인들의 무관심에 “飛虎”처럼 사라졌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원효의 사랑이 담긴 소요산 자재암, 네 번째 이야기 - 옥류폭포와 나한전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자재암은 한여름에도 서너 시간밖에 햇빛이 들지 않아, 사계절 내내 불을 지펴야 하는 곳이다. 날마다 해가 설핏 기울면, 자재암에서 피우는 연기는 뿌연게 골짜기를 채우고 물길을 따라 흘러나간다.

하늘이 언제나 손바닥만 하게 보이는 자재암의 답답함은 옥류폭포가 톡 터 준다. 아니, 암자를 메우는 경쾌하고도 명랑한 물소리에 시각적인 답답함은 외려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옥류폭포는 자재암의 소중한 존재다.

자재암의 안쪽 끝에서 거대한 바위가 하늘을 떠받드는데, 그 오른쪽으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옥류폭포다. '옥 옥玉' 자와 '물방울 떨어질 류溜' 자를 이름으로 삼았기에, 속살을 내비치는 투명한 옥구슬들이 떼를 지어 낙하한다. 옥구슬이 밀어내는 수면의 주름으로, 한낮의 파편들은 은빛으로 번뜩인다. 물속의 잔돌들은 일렁이는 잔영으로 남는다.

옥류폭포는 지면보다 더 깊숙한 땅속으로 쏟아진다. 마치 지표면 아래로 뚫린 수직의 동굴로 내리꽂히는 모습이다. 그런 까닭에 폭포의 전모를 보려면 난간에 기대어 아래쪽을 내려다봐야 한다. 낙차의 절반 이상이 발바닥 아래로 내려가는 지형 때문이다.

폭포의 시원시원한 생김새와 거침없는 행보는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깨끗이 씻어내기에 충분하다. 이토록 멋진 폭포를 경내에 둔 암자가 또 어디 있던가? 옥류폭포에는 자재암 창건과 관련 깊은 전설 한 꼭지가 전해온다.

원효스님이 참선 수행을 하고 계시던 어느 날이다. 밤이 들자 비바람이 더욱 세차게 초막을 뒤흔들었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절세의 미모를 지닌 젊은 여인이었다.

“스님,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아낙이온데 나물을 캐다가 그만 길을 잃었사옵니다. 잠시 비바람을 피해 몸을 녹이고 가면 아니 되겠습니까?”

스님은 여인을 위해 아랫목을 내주고, 윗목으로 올라가 가부좌를 틀었다. 여인은 비에 젖은 옷을 하나하나 벗은 뒤, 알몸으로 아랫목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여인의 체취가 새롭게 찾아든 고요한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어느덧 비바람이 그치고, 새벽이 밝아 왔다. 밤새 미동도 없이 앉았던 스님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초막 앞의 폭포로 들어가 몸을 씻은 뒤 물속에서 고요히 합장을 하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여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눈부신 나신으로 스님에게 다가왔다. 깜짝 놀란 스님은 즉시 법문을 베풀었다.

“심생즉종종법생心生即種種法生이요, 심멸즉종종법멸心滅即種種法滅이라. 마음이 일어나면 곧 옳고 그르고, 크고 작고, 깨끗하고 더럽고, 있고 없는 가지가지 모든 분별심이 생겨나는 법이요, 마음이 사라지면 곧 상대적인 시비의 가지가지 법이 없어지나니, 나 원효에게는 자재무애自在無碍라는 참된 수행의 힘이 있노라.”

스님의 사자후가 찌렁찌렁 계곡을 울리자, 여인은 이내 보관을 쓴 관음보살으로 현신하여 폭포 위로 날아올랐다. 스님의 깨달음을 점검하기 위해, 관세음보살께서 지난밤에 아름다운 젊은 아낙으로 화현化現하셨음이다.

나한전은 옥류폭포에게 자리를 내주려고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운 거대한 바윗덩이의 하단에 굴을 뚫어 만들었다. 앞쪽의 터진 공간은 화강암을 벽돌처럼 쌓아서 막았고, 중앙에 문을 만들었다. 다소 경직된 외양이지만, 얼마간의 근엄한 분위기가 풍긴다.

이곳 스님의 말에 의하면, 자재암의 나한전을 꿈에서 먼저 보고 찾아오는 신도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자재암의 관음기도와 나한기도는 영험하다고 널리 소문이 났단다.

나한전 입구의 오른쪽에서 양증맞은 용 한 마리가 샘물을 쏟아낸다. 본래는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던 ‘원효샘’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모양을 바꾸었다. 이 샘물은 만병통치의 약물로 이름이 나기에 이르렀으니, 특히 음력 삼월 삼짇날에는 이 물을 마시러 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꼬리를 문다고 한다.

나한전 안쪽에는 석가모니를 주불로 삼아, 좌우의 가섭과 아난존자 그리고 16나한을 모셨다. 그 앞에다 종내 천불을 채울 요량으로 아직도 시주를 받는 중이다. 작아도 웅장한 세상 하나가 동굴 안에 따로 환하게 펼쳐졌으니,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속 시원한 법문 한 자락을 듣는다고 여겨진다.



나한전 입구와 옥류폭포

숫구친 바위 아래로 폭포수는 쏟아지지만 나한전이 반대편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섰다.

다음 주는 “원효의 사랑 담긴” <소요산 자재암> 다섯 번째 이야기 “물빛 맑은 선녀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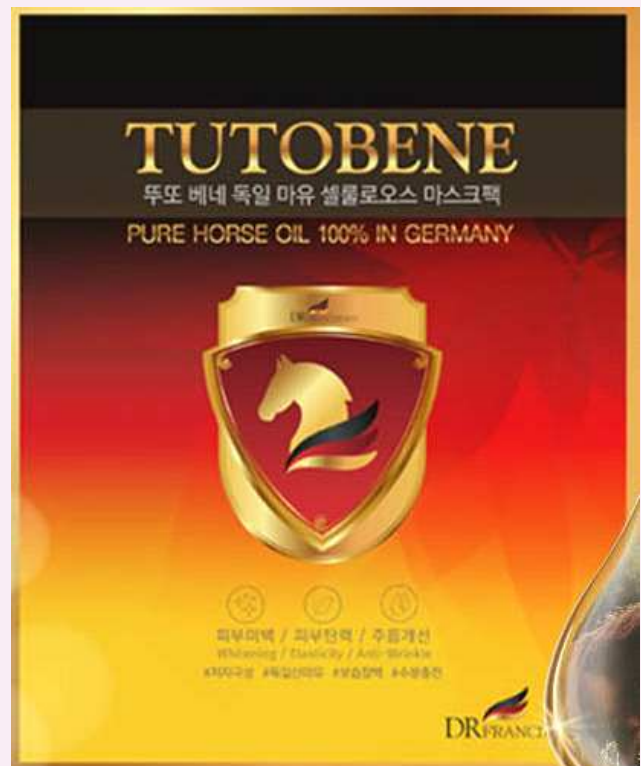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 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 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